

한국 공공도서관의 재난대비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and Countermeasure Plan for the Disaster Protection in Public Library of Korea

김 포 옥(Po-Ok Kim)**

목 차

- | | |
|----------------------|--------------------|
| 1. 서론 | 4.3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요소 |
| 2. 재난과 재난관리 | 4.4 인적 요소 |
| 3. 국내외 도서관의 재난발생 사례 | 4.5 안전교육상의 요소 |
| 4. 공공도서관의 재난대비 현황 분석 | 5. 문제점 분석 |
| 4.1 일반적 사항 | 6. 해결방안 및 재난대책의 확립 |
| 4.2 관리상의 요소 | 7. 결론 및 제언 |

초 록

최근 세계 각 지역에서 지진과 태풍 및 쓰나미와 같은 각종 재난과 재해에 관한 뉴스가 보도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지진이나 테러 등의 영역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도서관 역시 많은 이용자가 출입하는 장소로 각종 재난의 대책을 미리 준비하여야 할 기관이다. 이에 연구자는 서울, 대전, 전북지역의 공공도서관 75곳을 대상으로 비상시 재난대책에 관한 현 실정을 분석하였다. 각 도서관마다 재난의 유형별 발생 원인과 복구방안 등을 검토하였고, 도서관 운영 중 재난관리상의 요소와 시설 및 장비요소, 인적담당요원의 고용과 배정실태 및 이용자를 위한 안전강좌의 시행과 교육방법등 4가지요소를 기초로 면밀히 조사 분석하였다. 검토 후 각 요소별에 따른 문제점 분석과 함께 그 해결방안 및 미래 재난대책을 위한 개선점과 제안점 등을 정리하였다.

ABSTRACT

Recently, there have been a number of news reports on natural disasters, like earthquakes, typhoons, floods and tsunami, all over the world. Korea does not seem to be safe from such disasters or terror threats. As places with high numbers of visitors, libraries need to take preventive measures to be prepared for such disasters and threats.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emergency measures adopted by 75 public libraries in Seoul, Daejeon and Jeonbuk in Korea. For each library surveyed, the causes of and ways to recover from disasters were reviewed and detailed analyses were carried out in four areas: Implementation of preventive measures, disaster management and equipment, status of human resources and assignment of people to disaster recovery, safety courses offered to library users and training methods. In addition, each area was analyzed in regard to possible solutions and ideas for improvement, as well as suggestions to upgrade disaster recovery systems in the future.

키워드: 재난, 재해, 도서관화재, 지진, 재난관리, 재난대책, 이용자안전교육, 재난복구, 응급복구
Disaster, Library Fire, Earthquakes, Disaster Management, Disaster Countermeasure, User Safety Education, Disaster Recovery, Emergency Recovery

* 본 연구는 2005년도 전북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pook-kim@hanmail.net)

논문접수일자 2006년 11월 5일

게재확정일자 2006년 12월 14일

1. 서론

최근 들어 세계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2005년도 인도네시아 연안의 쓰나미 사건이나 뉴욕시의 무역센타 빌딩의 테러사건 등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보도된 바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 이곳저곳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자주 보도되고 있다.

사회 여러 기관 속에서도 공공도서관은 많은 이용자가 출입하는 장소로 그 직원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미리 계획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도서관에는 장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도서류 외에도 서구나 책상과 의자 및 북트랙등의 목조용 비품이 많은 곳으로 이 모두가 불과 물에 아주 약하다. 또한 건물내부의 조명기구나 컴퓨터와 프린터 및 복사기 등의 각종 장비와 배선 등은 전기적인 충격이나 합선, 누전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공공도서관에서 수십년간을 근무하고 있는 중견사서들조차 도서관의 화재나 지진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상상이나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매일매일의 업무에 지나쳐 간과해 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서관의 건물이나 시설 장비들은 사람에게 의한 인간재난이나 지진 및 태풍과 같은 각종 자연재난에 대하여 다각적인 관심과 예방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들이 어떠한 재난을 당하였는가 그 경험 등을 조사하고 실태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예방과 함께 비상사태의 경우 신속하

고도 체계적인 재난대책을 연구하고자 한다.

도서관 재난에 관한 연구자료는 국내에서 아직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관계로 겨우 한두편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과 관련된 현재의 재해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을 검토 조사한 후 국내외 공공도서관들의 자연재해는 물론 인위적 재난발생의 사례조사와 재난예방책을 위한 관리지침 및 인적, 물적 요소와 안전교육에 관한 여러 항목들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으로는 전국 공공도서관중 서울과 대전 및 전북지역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130개를 선정, 설문지를 배포하여 75개처의 회수율을 얻었다.

설문조사 결과 유의한 값이 나타나는 항목에 대하여는 추가로 전화면담 방법을 실시하여 조사된 내용을 재확인 검토하였다.

2. 재난과 재난관리

2.1 재난의 개념 및 분류

어원상 재난(Disaster)의 'Dis'는 불일치의 뜻이며 'Aster'는 라틴어로 Astrum 또는 Star라는 의미로서 재해는 별의 배열이 맞지 않아 생기는 재앙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어원을 분석할 때 재난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일어나는 자연재해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인위적 사고가 재난의 개념에 포함하게 된 것은 현대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점차 확대되고 변화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¹⁾

1) 안중석. 2004. 『우리나라 재난대응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 행정대학원. p.2.

우리나라 재난관리법 제2조에서는 재난을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재방사, 환경오염 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사고'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서는 재해를 홍수,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난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뿐 아니라 재난의 복합적인 현상으로 인해 그 분류기준도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재난은 크게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으로 구분한다.

자연재난은 홍수, 폭풍, 해일, 쓰나미, 폭설, 지진과 같이 자연현상에 기인한 재난을 가리키며, 화재사고나 폭발사고, 전쟁, 붕괴사고와 같이 도시화 현상과 함께 사람에게 의한 사고를 인위적 재난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2005년도에 발생했던 인도네시아 연안의 쓰나미라고 하는 경우는 극도로 긴 길이와 주기를 가지고 이동하는 일련의 해양파도를 의미하며, 그 발생원인은 해상 부근 또는 바다 밑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연관된 교란에 의하여 발생되기도 한다고 한다.²⁾

그리고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의 복합적인 경우가 발생되기도 하는데, 이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인위재난중 방사능 누출사고나 화학적 공장사고 등과 같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장기간 재해현상이 진행되는 경우라고 한다. 또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도 단기간에 걸쳐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는데 이들은 각각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2.2 재난관리의 단계

우리나라의 재난관리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재난관리의 개념을 재난발생의 위협성을 제거하고 재난발생시 피해의 수습과 복구를 행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재난관리를 광의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난관리의 과정은 4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먼저 재해의 발생을 중심으로 재해 발생이전과 발생이후의 국면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재해가 발생하기전의 단계로 예방단계와 준비단계로 나누고 재해발생후의 단계로 대응단계와 복구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러한 단계들은 서로 독립적 과정이 아니라 상호연계 작용으로서, 이러한 단계 활동들의 내용을 간략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예방단계

예방단계란 재난으로부터 인간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단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여러 활동을 수행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즉, 재난의 발생요인을 미리 예상하여 제거시키거나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서 아예 재난의 성질을 변화시키거나 손실 우려가 있는 취약성을 소멸시킴을 목표로 한다.

이 단계에서 행하여지는 주요 활동으로서는 재난관리를 위한 장기계획의 마련과 화재방지 및 기타 재난의 피해를 축소하기 위한 건축법규의 제정 또는 위험지역을 조사, 표시하여 지

2) <http://100.naver.com/100.ahn.docid=57334>, 2006.5.26 게재

도를 준비하며,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지정과 수해방지지설의 공사계획 및 안전기준에 대한 설정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재난예방단계의 제반활동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와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서 예산상의 지원을 반드시 얻어내어야 하는 활동과 홍보가 수반되어야 한다.

나) 준비단계

준비단계란 공공도서관 주변지역의 소방서나 경찰서와 같은 공공기관간의 사전동의를 구하며, 재난의 손실을 줄이고 직원이나 이용자들의 생명을 보호할 대응자들을 훈련시키며 대응계획을 개발시키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에는 재난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계획이나, 경보체제나 기타 다른 수단을 준비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준비활동으로서 반드시 예행연습과 가상훈련 및 교육실시 후 재난관리가 정상으로 신속히 복구되도록 함을 목표로 두고 있다.

다) 대응단계

대응단계는 재난의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아무리 재난준비를 갖추었다고 해도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대응단계는 준비계획의 행동지침과,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비상 행동요령의 숙지 노력, 그리고 비상상황실의 운영, 긴급피난장소로의 대피소 운영, 인명수색과 구호 등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취하여야 하는 응급활동 등을 말한다.

대응활동의 원활한 수행은 각 부서의 협력체제와 정보의 전달체제 및 현장의 지휘체제 그

리고 응급의료체제가 잘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재난현장을 지휘하는 현장지휘본부는 대형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여러 기관 간에 주고받는 명령과 정보전달이 발생되는데, 각 기관의 책임자들이 현장지휘본부에 있다면 응급대응이 보다 쉬워질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지휘자는 직접적인 작업참여 보다는 전체적인 협조계획과 결정에 전념해야만 한다.

라) 복구단계

복구단계는 장기적인 원상복구 또는 개량하여 행하는 복구의 단계 등을 의미한다. 도서관의 장서가 물에 의해 손상을 입게 되는 경우는 홍수나 태풍등 기후상의 요인으로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누수나 배수장치의 이상으로 인한 건물의 문제로부터 발생될 수 있다. 또는 오히려 화재 진압을 위해 사용된 물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홍수와 함께 도서관은 화재도 발생하는 빈도가 매우 높을 수 있다. 또 다른 재난으로는 태풍이나 지진, 테러분자들의 행위, 전쟁과 폭발등도 발생할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도서관 재난으로 발생한 위험물들의 제거행위나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방역이나 소독활동을 수행하는 단계이지만, 도서관의 복구관리란 하루라도 주민들의 이용을 중지할 수 없기에 준비된 계획에 따라 열람봉사와 합리적 활동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국내외 도서관의 재난발생 사례

전 세계 도서관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기록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재난은 도서관이 공

휴일이던 아니던 아무 때나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세계 각처에서 발생하였던 각종 재난 사례 중에서 특히 공공도서관에 있었던 사례를 역사적으로 대략 검토해 보고자 한다.

3.1 국내도서관의 재난사례

국내에서는 그동안 도서관의 재난사고로서 언론 보도에 실릴 만한 심각한 재난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된다. 그러나 지난 2004년 매미 태풍으로 공공도서관 건물의 지붕에 누수현상이 나타나 일부 장서가 물에 젖었던 현상이나 또는 외국과 같이 대형사고는 아니더라도 일부 도서관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다음 장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화재사건은 아니지만, 2004년 3월23일 대구 영남대 중앙도서관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부 1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경찰은 차후 도서관 화재 원인으로 보도된 것은 건물 내부 공사 중 용접 작업장의 안전소홀로 불씨가 튀어 대형화재로 이어졌다고 말하며, 이로 인한 영남대 도서관의 재산피해는 총 23,056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

또한 국내에서도 지진으로 인한 재난발생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내에서 발생한 지진의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15세기부터 17세기 사이에 지진활동이 활발하였고, 그 중 16세기에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 후 18세

기부터 지진활동이 다소 감소하다가 20세기에 들어서서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기록상의 감지되어진 지진의 횟수만도 약 1,800여회에 달한다고 한다. 실제 역사적으로 기록되지 않았거나, 또는 기록이 불확실한 지진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그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⁴⁾

즉 한반도에서 사람들이 피부로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지진이 적어도 매년 1회 또는 2회 이상 발생하였다. 진도 규모 4.3이상의 지진은 약 400회 정도 있었고, 진도 규모 5.3 이상의 지진중에서도 인명 및 재산피해의 기록이 있는 지진은 약45회 이상 일어났다.⁵⁾ 평균 약 50년에 한번 정도의 피해지진이 발생한 셈이다. 이것 역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그 숫자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지진의 발생은 지반의 붕괴나 진동으로 인하여 누전 또는 가스관의 파열이 일어나 화재로 발생 전파하며, 도시 과밀지대의 지진 피해 중에 가장 피해를 주는 요인으로서 사상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우리나라 보다는 최근 사상자를 많이 발생시키었던 지진의 사례는, 1923년도의 동경지진 이나 1995년도의 고베지진의 경우⁶⁾ 그리고 1906년 샌프란시스코의 지진이 해당되고 있다.

3.2 국외도서관의 재난사례

세계 각처의 도서관에서 있었던 재난 발생의

3) 한국일보 2004년 3월 23일 "영남대 도서관에 화재" 게재.

4) 한국지진공학회, 2001. "우리나라의 지진활동." p.8.

5) 상계서. p.8.

6) 1995.1.17일 리히터규모7.2도의 도시직하형지진으로 당시 6,432명이 사망하고 29만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http://kim.naver.com/db/detail.php?dclid=11 \\$ dir-id=1102068](http://kim.naver.com/db/detail.php?dclid=11%202068). 2006.4.25 검색.

사례를 중심으로 그 경위와 피해 내용들을 대강 시대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3.2.1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의 재난.

옛날의 도서관이 소실된 지 1천700년만에 2002년 10월 재개관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또 다시 2003년 3월 2일 화재가 발생하여 40여명이 부상했으나, 도서관에 소장된 고문서와 희귀 서적들은 온전하다고 이집트 관영 메나(MENA) 통신이 보도하였다.

세계 최초의 공공도서관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원래 기원전 295년에 건립되었었다. 그러나 4세기 때 이는 불타 없어졌으며, 문맹퇴치와 교육사업에 헌신해 온 이집트의 퍼스트 레이디 수잔 무바라크 여사의 구상으로 2002년 10월 16일 재개관하게 된 것이었다.

2003년 3월의 화재는 관리인들이 사용하는 도서관 4층에서 이날 오전 11시경에 누전으로 인해 발생했으나 도서관 자체 화재예방 시스템과 소방대의 지원으로 30분만에 진압되어, 다행히 커다란 피해는 모면했던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⁷⁾

3.2.2 미국 도서관의 사례

1986년 홍수로 인해 로스앤젤리스 중앙도서관(Los Angeles Central Library)의 장서 110만권 중에서 40만권의 도서가 소실되었고, 나머지 70만권의 장서는 냉동건조법에 의해 겨우 복구되었다고 한다. 1988년 버지니아에 있는 포트머스 공공도서관(Portsmouth Public Library)

의 전기 사고로 인한 화재는 “도서관이 폭파되었다”고 묘사될 정도로 심각한 정도였다.

또한 1906년 샌프란시스코만 연안에 8.3도의 강진이 발생되었는데, 그 이전 1982년 7.1강도의 지진이 또 발생한 바 있었다. 8.3도의 강진은 당시 샌안드레아스의 거대한 단층을 발생시켰는데, 이런 자료를 기초로 일부 과학자들은 또 다른 지진이 8.0도 이상의 힘으로 발생하여 나라를 황폐화 시킬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증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민간인들은 샌프란시스코 공공도서관을 다시 전격적으로 리모델링한 후 대중에게 인터넷이 가능한 수백대의 컴퓨터를 제공하면서 자랑스러워하였다고 한다.⁸⁾

결국 1906년의 지진은 샌프란시스코 공공도서관의 장서 30만권을 일시에 소실시켰으며, 동시에 스탠포드대학도서관의 장서도 전체의 약 75%가 훼손될 정도였다고 한다. 이로서 현재의 미국지진학회가 탄생하게 되기도 하였다.⁹⁾

1966년은 세계가 홍수로 인해 큰 재난을 겪은 한 해였다고 생각된다. 1966년 프랑스와 이탈리아에도 홍수로 도서관이 큰 피해를 당하였고, 미국의 플로렌스지방의 홍수사태도 재난 준비계획의 중요성에 관해 도서관 전문가들의 의식을 확고히 다져 주었던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¹⁰⁾

3.2.3 영국 도서관의 사례

영국 도서관에서 발생했던 32건의 화재 중 6건은 책의 반납과정상에서 발생한 일이다. 파

7) 도쟁이 홈 <화재>로 검색. <http://203.241.185.121/stork.html> [cited. 2005.9.15]
8) 국립방재연구소, 2001. 지진에 관한 일반사항 및 과거지진의 교훈. p.33 1906.4.18 캘리포니아 연안 지방에서 일어난 대지진으로 45km의 길이로, 당시 1,400명이 사망하였다.
9) <http://www.sfmuseum.org/loc/movie.html>. "Virtual museum of the city of San Francisco" [cited 2005.12.4]
10) [http://cafeblog.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article&article=\\$query=1966.<1966 대홍수>](http://cafeblog.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article&article=$query=1966.<1966%20대홍수>)로 검색.

이오니어 도서관(Pioneer Library-Delta, British Comumbia)에서는 이용자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하지 않았던 낮 시간에 도서가 화약과 가솔린으로 만들어진 폭탄이 장착되어 반납되었다. 그 폭탄은 도서관 내부를 파괴시켰는데, 만약 도서관이 개방되었던 경우라면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반납도서를 이용하여 도서관에 불을 지른 것은 그다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나 그 피해는 실로 엄청난 경우가 된다.

이같이 도서관의 방화는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영국의 32건의 화재 중 8건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 사이에 발생했다. 단지 3건 화재의 방화범이 도서관의 “불량 이용자”로 알려져 있었을 뿐 나머지 화재의 방화범들은 모두 외부 방문객들이었다. 사서들은 화재와 방화에 대한 보안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¹¹⁾

이와 같이 도서관 재난의 역사는 길지만, 반면에 그 재난대책의 역사는 극히 최근 시기로 매우 짧은 기록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재난 대책이 도서관을 경영하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받게 된 것도 아주 최근으로 1970년대 이후로 분석된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외국도서관에서 발생되었던 각종 재난사례들을 정리해 보았다. 이러한 재난사례를 기초로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들을 대상으로 어떤 실정으로 재난을 대비하고 있으며 또 어떤 장비와 시설들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 분석해 보고자 한다.

4. 공공도서관의 재난대비 현황 분석

국내 공공도서관들이 그동안 어떤 재난을 당하고 피해를 받았는가 또는 재난대응을 위해 어떤 지침과 계획 및 장비나 시설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안전교육의 방법과 직원의 배치는 어떤 실정인가 등 면밀히 그들의 실태를 조사하고자 한 결과 회수된 설문 자료 75개를 중심으로 분석 정리해 보았다.

4.1 일반적 사항

1) 공공도서관의 유형별 재해 조사

도서관 경영자는 그 직원과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어야만 한다. 도서관의 시설이나 장비는 각종 인간재난 및 자연재난에 대하여도 다각적인 관심과 예방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들이 어떠한 재난을 당하였는가 그 경험 등을 조사하고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표 1〉에서와 같이, 조사된 전국 75개 공공도서관에서 1순위로 과반수(52%) 이상이 재해를 당한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서는 25개의 도서관에서 지붕누수로 인한 재해를 많이 당한 사례로 나타났으며, 그다음 순위로는 컴퓨터시스템의 장애나 해킹을 당한 도서관이 9개관(12%)이며, 홍수로 인한 침수가 7개관(9.3%), 그리고 자연재해로서 태풍과 도난이 각각 3개관(4%)으로 나타났고, 화재와

11) 국립방재연구소 편간, 지진에 관한 일반사항 및 과거지진의 교훈, p.34.

〈표 1〉 공공도서관의 유형별 재해(중복응답)

재해종류	경험유무	예	비율(%)	아니오	비율(%)	합계
화재		2	2.7	73	97.3	100.0
홍수(침수)		7	9.3	68	90.7	100.0
태풍		3	4.0	72	96.0	100.0
지진		0	0.0	75	100.0	100.0
지붕누수		25	33.3	50	66.7	100.0
폭발물 위협		0	0.0	75	100.0	100.0
가스누출		0	0.0	75	100.0	100.0
테러		1	1.3	74	98.7	100.0
절도		2	2.7	73	97.3	100.0
도난		3	4.0	72	96.0	100.0
컴퓨터 시스템 장애나 해킹		9	12.0	66	88.0	100.0
재난 없었음		39	52.0	36	48.0	100.0
기타		4	5.3	71	94.7	100.0

절도를 당한 도서관이 각각 2개관(2.7%)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2) 공공도서관 재해의 발생원인 조사

재난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 자연재해와 인간재해로 구분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자연재해보다는 인간재해에 관한 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표 2〉와 같이, 도서관에서는 다른 기관들에 비하여 재해를 당해 보지 않은 도서관들이 45.3%로서 가장 높게 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 재해의 여러 요인 중에는 인간재해로서 문제성 있는 이용자에 의한 폭언이나 폭행 등에 관한 내용이 7개 도서관(9.3%)으로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는 홍수로 인한 누수의 재해가 6개관(8%)이며, 누전이나 방화 및 담뱃불 또는 공사 중 불티로 인한 화재의 원인이 2개관 또는 1개관 등으로 나타나며, 그 외에 고의적 파괴와 장비부족으로 인한 재해등도 각각 2개관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공공도서관 재난 후의 피해상황

〈표 3〉과 같이, 재해를 당한 도서관중에서 그 피해정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장서가 물에 젖었던 피해 내용을 5개 도서관에서 지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장서에 곰팡이와 해충이 발생하였던 피해를 지적하고 있다. 그 외에 직원과 이용자들이 상해를 입었던 피해 경험을 1개 도서관에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귀중자료의 오염이나 소실이 없었던 점 그리고 필립이나 사진 그 외 지도자료 등의 피해정도가 전혀 없었던 현상들은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 이러한 특수자료를 거의 소장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 분석된다.

4.2 관리상의 요소

1) 재난발생시 비상행동요령의 지침 여부

〈표 4〉와 같이, 공공도서관 운영상 재난에 대비하여 이용자나 직원을 위한 비상계획서나 행동요령이나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에 관한

〈표 2〉 공공도서관 재해의 발생원인 조사

재해의 발생원인	도서관수	비율(%)
누전	2	2.7
방화	1	1.3
담뱃불	1	1.3
홍수로 인한 누수	6	8.0
고의적 파괴	2	2.7
장비부족 및 장애	2	2.7
공사중 불티로 인한 원인	1	1.3
문제이용자의 폭언과 폭행	7	9.3
연기나 가스누출	0	0.0
비위생적해충이나 동물들의 침입	0	0.0
많은 먼지	0	0.0
사람에 의한 재해 없음	34	45.3
기타	1	1.3
미응답	18	24.0
합계	75	100.0

〈표 3〉 공공도서관의 재난후의 피해상황

도서관 재난후의 피해정도	도서관수	비율(%)
물에 젖은 장서 발생	5	6.7
장서에 곰팡이와 해충 발생	2	2.7
먼지와 불길에 자료가 연소	0	0.0
필름,사진,지도자료등의 복구불능	0	0.0
귀중자료의 오염,소실	0	0.0
인명 피해	1	1.3
기타	53	70.7
미응답	14	18.7
합계	75	100.0

〈표 4〉 재난발생시 비상행동요령의 지침 여부

계획지침유무	빈도수	비율(%)
있다	55	73.3
없다	20	26.7
합계	75	100.0

실태 조사에서는 전체 75개 도서관 중 55개 도서관(73.3%)에서 지침을 가지고 있으며, 20개 도서관(26.7%)에서는 전혀 행동지침에 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재난전담부서의 유무

〈표 5〉와 같이, 공공도서관의 운영상에서 재난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부서를 두고 있는 도서관은 36개관으로 48%의 비율을 나타나고 있으며, 전담부서가 없는 도서관은 38개 도서관(50.7%)으

로 전자 보다 커다란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3) 재난대책 예산책정의 만족도

재난예방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 도서관은 36개관(4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독립된 예산을 책정하고 있더라도 그 예산에 만족하기(2.7%) 보다는 보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17개관(22.7%)이고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14개관(18.7%)으로서 오히려 불만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6 참조).

4) 도서관건물의 순찰기록 작성 여부

재난예방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물의 순찰점검용 기록을 작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75개 도서관 중에서 47개 도서관(62.7%)에서 점검기록을 실시하고 있으며, 27개 도서관(36.0%)은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표 7 참조).

5) 순찰점검 기록의 내용별 순위조사

〈표 8〉과 같이 보안 담당요원이 공공도서관 건물의 안전을 위하여 순찰업무를 행할 경우, 점검내용의 조사 기록으로는 도서관 건물의 천정이나 벽면으로 지나가는 배관의 누수부분을 가

〈표 5〉 재난전담부서의 유무

담당부서의 유무	도서관수	비율(%)
예	36	48.0
아니오	38	50.7
미응답	1	1.3
합계	75	100.0

〈표 6〉 재난대책 예산책정의 만족도

예산의 만족도	빈도수	비율(%)
책정없음	36	48.0
보통	17	22.7
불만족	14	18.7
만족	2	2.7
모름	5	6.7
미응답	1	1.3
합계	75	100.0

〈표 7〉 도서관 건물에 순찰기록 작성 여부

담당부서의 유무	도서관수	비율(%)
예	47	62.7
아니오	27	36.0
미응답	1	1.3
합계	75	100.0

〈표 8〉 순찰점검 기록의 내용별 순위조사

내용	체크여부	예	비율(%)	아니오	비율(%)	합계
서고내 온습도 상태		20	26.7	55	73.3	100.0
누수부분 확인		39	52.0	36	48.0	100.0
보일러실 온도		27	36.0	48	64.0	100.0
마이크로 필름실		2	2.7	73	97.3	100.0
건물 파괴		38	50.7	37	49.3	100.0
식당위생상태		21	28.0	54	72.0	100.0
비상벨 장치		37	49.3	38	50.7	100.0
전기배선		31	41.3	44	58.7	100.0
비상구 대피로		35	46.7	40	53.3	100.0
방화벽 작동 여부		22	29.3	53	70.7	100.0
담뱃불 확인		30	40.0	45	60.0	100.0
스프링클러		17	22.7	58	77.3	100.0
수상한 이용자		26	34.7	49	65.3	100.0
기타		3	4.0	72	96.0	100.0

장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곳이 39개관(52.0%)으로 1순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2순위는 건물의 파괴 및 붕괴 상태를 확인하는 곳이 38개관(50.7%)으로 나타났고, 3순위로는 도서관 건물 내 비상벨장치의 작동유무를 확인하는 곳이 37개관(49.3%)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4순위로는 비상구 대피로의 장애물의 유무상태를 35개관(46.7%)에서, 5순위는 전기배선 장치의 누전상태를 31개관(41.3%)에서, 6순위는 도서관내의 각 사무실이나 열람실 등의 담뱃불의 잔재를 확인하는 곳이 30개관(40.0%), 7순위는 보일러실의 온도상태를 확인 기록하는 곳이 27개관(36.0)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그 외 도서관내에서 수상한 이용자나 배회자가 있는가를 조사하는 곳이 26개관(34.7%)이고, 도서관내 화재예방을 위한 방화벽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곳이 22개관(29.3%)이며, 도서관 구내식당의 가스누출이나 해충 등의 위생

상태를 조사하는 곳이 21개관(28.0%)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으며, 서고내의 온습도의 상태를 조사하는 곳이 20개관(26.7%), 그리고 각 열람실과 사무실내의 스프링클러의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곳이 17개관(22.7%), 그 밖에 마이크로 필름실 등의 곰팡이나 해충의 상태를 살피는 일을 2개관(2.7%)에서 각각 조사 기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6) 비상시 행동의 우선순위도

공공도서관에 갑자기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 직원들이 어떤 행동을 가장 우선순위로 실행할 것인가 3가지씩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조사 분석해 보았다.

〈표 9〉와 같이 조사 결과 75명의 사서들 중 73명(97.3%)의 사서들이 이용자들을 우선적으로 대피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2순위는 먼저 경찰서나 소방서에 신고하는 행위를 61명(91.3%)의 사서들이 지적하고 있으며,

3순위는 우선 비상벨부터 올리겠다고 응답한 사서들이 36명(48.0%)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는 도서관에 소장된 DB의 손상을 막기 위해 우선 전원장치부터 차단한다고 응답한 사서들이 27명(36.0%)으로 4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의 귀중장서를 먼저 옮기는 행동이나, 도서관의 중요서류를 먼저 옮기는 행동에 관하여는 각각 22.8%와 8.0%로 아주 저조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같은 사서들의 인식의 부진성은 하루 속히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7) 공공도서관 비상물품 목록의 작성

재난에 대비하여 공공도서관에서 비상물품에 관한 목록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 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 10>과 같이 물품목록을 작성하고 있지 않은 도서관이 38개관(50.7%)

으로서, 목록을 작성하고 있는 도서관의 36개관(48.0%)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8) 귀중장서나 귀중문서의 목록준비 여부
 도서관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장서와 자료들이 구비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들 중에는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래의 서고 위치를 벗어나 이용대출 또는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귀중자료들을 별도 보관하는 일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평상시 이들을 면밀히 점검 기록하여 두었다가 비상시 긴급이동에 필요하므로 반드시 그 위치의 상황을 확인하며, 대피를 시켜야 할 담당직원들의 관리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하여 이러한 자료들의 목록표를 기록으로 준비하고 있는가를 조사해 보았다.

<표 9> 비상시 행동의 우선순위도

내용	우선순위여부	예	비율(%)	아니오	비율(%)	합계
중요서류		6	8.0	69	92.0	100.0
이용자 대피		73	97.3	2	2.7	100.0
귀중 장서		17	22.7	58	77.3	100.0
비상벨		36	48.0	39	52.0	100.0
소방서에 신고		61	81.3	14	18.7	100.0
전원장치 차단		27	36.0	48	64.0	100.0
기타		0	0.0	75	100.0	100.0

<표 10> 공공도서관 비상물품 목록의 작성

비상물품 목록의 작성여부	빈도수	비율(%)
예	36	48.0
아니오	38	50.7
미응답	1	1.3
합계	75	100.0

〈표 11〉 귀중장서나 문서목록의 준비 여부

목록의준비여부	빈도수	비율(%)
예	30	40.0
아니오	44	58.7
미응답	1	1.3
합계	75	100.0

〈표 11〉과 같이 귀중자료의 목록을 구비 못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이 44개관(58.70%)으로서, 오히려 목록을 완비하고 있는 도서관 30개관(40.0%)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같이 공공도서관 사서직 중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재난에 대비하고자 하는 귀중본이나 귀중문서들에 관한 개념이나 인식이 모두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9) 컴퓨터 데이터의 보호예방책

최근 공공도서관에서는 이용관리상 각종의 정보와 지식에 관한 자료를 컴퓨터에 저장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이 순간적인 장애를 받아 도서관에 커다란 손실을 끼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저장된 데이터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어떤 장치를 두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표 12〉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도서관 컴퓨

터내에 보안프로그램으로 웹방화벽 장치를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이 75개 도서관중 57개관(76.0%)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데이터의 손실을 막기 위해 백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이 47개관(62.7%)으로 나타나며, 3순위로는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시키고 있는 도서관이 29개관(38.7%)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외에 전기 충격의 방지장치를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도서관도 15개관(20.0%)으로 나타나고 있다.

4.3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요소.

재난에 대비하여 공공도서관에서는 현재 어떤 장비나 도구들을 갖추고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16개 항목을 제시하고 현재 구비되고 있는 품목들을 모두 체크하도록 요구한 결과, 그 분석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2〉 컴퓨터 데이터의 보호 예방책

내용	구비여부		비율(%)		합계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방화벽	57	18	76.0	24.0	100.0
전기충격방지장치	15	60	20.0	80.0	100.0
정기적 백업	47	28	62.7	37.3	100.0
비밀번호 변경	29	46	38.7	61.3	100.0
기타	7	74	7.3	92.7	100.0

〈표 13〉 재난대비용 장비실태 조사

내 용	구비여부	예	비율(%)	아니오	비율(%)	합계
1. 향온 향습 장비		30	40.0	45	60.0	100.0
2. 물분무식 소화		49	65.3	26	34.7	100.0
3. 경보 장치		67	89.3	8	10.7	100.0
4. 화기 센서 장치		35	46.7	40	53.5	100.0
5. 열화감지기		50	66.7	25	33.3	100.0
6. 미끄럼대		1	1.3	74	98.7	100.0
7. 피난사다리		13	17.3	62	82.7	100.0
8. 완강기		30	40.0	45	60.0	100.0
9. 스프링클러		20	26.7	55	73.3	100.0
10. 환기용 선풍기		21	28.0	54	72.0	100.0
11. 냉동차, 냉동고		1	1.3	74	98.7	100.0
12. 렌턴		32	42.7	43	57.3	100.0
13. 이동용 무전기		7	9.3	68	90.7	100.0
소방호스		47	62.7	28	37.3	100.0
모래함		14	18.7	61	81.3	100.0
아무것도 없음		2	2.7	73	97.3	100.0
기타		3	4.0	72	96.0	100.0

1) 재난대비용 장비실태 조사

〈표 13〉과 같이 우선 가장 많이 구비되고 있는 장치는 비상벨 경보장치로서 75개 공공도서관중 67개관(89.3%)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순위는 물분무식 또는 개스식 소화설비를 갖추고 있는 도서관이 49개관(65.3%)으로 나타났고 3순위로는 연기나 열화감지기 장비시설이 되어 있는 도서관이 50개관(66.7%)으로 나타났다. 4순위로는 소방호수를 구비한 도서관이 47개관(62.7%)으로 이와 같은 장비들은 현재 과반수 이상의 도서관에서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서고내 화기센서장치가 되어 있는 곳은 35개관(46.7%)으로 5순위로 나타나며, 이동용 조명기인 렌턴을 가지고 있는 곳은 32개관(42.7%)으로 6순위 이고, 향온향습장비를 구비한 곳이 30개관(40.0%)으로 7순위로서 이들 장비는 대부분 고가품목들로서 공공도서관들의

예산상의 문제로 그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된다.

그리고 공기 순환기용 선풍기를 구비한 곳은 21개관(28.0%)으로 나타나고, 각 방이나 실마다 스프링클러장치가 되어있는 곳이 20개관(26.7%)이며, 모래함이나 대피용 사다리 또는 이동용 무전기 등을 갖고 있는 도서관은 극히 저조한 비율로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가장 우려되고 있는 도서관은 아무런 장치나 도구도 없다고 응답한 2개관이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도서관 운영자나 소속 관계자들의 안전 불감증에 기인한 문제로 지적된다.

2) 건물구조내 대피시설의 용이도

도서관 건물의 구조상 재난을 당할 경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대피시설의 편리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표 14〉와 같이 전체 공공도서관 중 69개(92.0%)의 대다수 도서관들이 바

〈표 14〉 건물구조내 대피시설의 용이도

대피시설의 구조	빈도수	퍼센트
비상구나 비상계단이 찾기 쉽다	69	92.0
방화벽이 장치됨	2	2.7
건물내 출입구가 많아 용이하다	3	4.0
대피로가 용이하지 않다	1	1.3
합계	75	100.0

〈표 15〉 비상구 주변의 정리상태 조사

비상구의 상태	빈도수	비율(%)
항상 개방	57	76.0
비상시 자동	13	17.3
이용 불편	1	1.3
미끄럼위험	0	0.0
장치 없음	1	1.3
기타	35	4.0
합계	75	100.0

상구나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대피시키는 것이 가장 용이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방화벽의 차단이나 건물내 출입구의 수가 많아서 이용자들의 대피시 편의성을 지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겨우 4% 이내 비율로서 극히 저조한 실정을 보이고 있다.

3) 비상구 주변의 정리상태 조사

참고 내용으로서, 소방법 제30조 제2조의 내용에서는 피난, 방화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의 행위를 조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1. 피난, 방화시설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피난시설 등의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 또는 방화시설 등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 방화시설 등의 변경 행위 등의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지시하고 있다.

〈표 15〉와 같이 재난시 공공도서관 건물의 비상구가 항상 이용 가능하도록 주변이 깨끗이 잘 정돈된 상태인지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비상구의 문이 항상 열려 있으며 동시 불도 항시 점등되어 있는 것으로 응답한 도서관이 57개 도서관(7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2순위로는 비상구는 항상 열려 있는 있으나, 비상시에만 자동 점등되는 공공도서관이 13개(17.3%)로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비상구 주변에 물건이 적재되어 있어 비상시 대피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거나, 비상구에 점등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도서관이 각각 1개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공공도서관들은 비상구의 주변 상황이 잘 정돈되어 있는 실정이나, 소수의 도서관이 비상시에 대비되지 않은 상황은 시급히 개선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비상발생시 정하여진 출입구로만 통행이 가능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평상시에는 도서관

비상구를 폐쇄하고 막상 재난을 당할 경우에만 비상구를 개방해야 한다는 일부 사서들의 견해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보호차원에서 참으로 우려되는 실정이다.

4) 건축상 실배치 설계 구조

공공도서관에는 건축상 전기나 가스, 유류 등을 사용하는 시설 등을 필요로 하게 되어 있다. 이에 도서관을 출입하는 이용자나 직원들의 안전성과 재난대피를 위하여 도서관 건물 내부 설계의 실배치에 관한 조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표 16>과 같이 보일러실을 지하층에 배치한 도서관이 47개(62.7%)로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순위로는 장서의 하중력을 고려하여 이용율이 저조한 자료들은 별관에 보존하고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33개 도서관(44%)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이용율이 높은 자료들은 아래층 열심실에 배치하고 있다는 공공도서관이 30개관(40.0%)으로 3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그 외에 전기의 배선이 많이 필요한 컴퓨터실을 아래층에 배치하고 있다는 공공도서관은 16개 도서관(21.3%)으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각종 열람실을 아래층, 사무실은 상층으로 분리 배치하고 있는 사례의 도서관은 5개관(6.7%)으로 극히 저조하

게 나타나고 있다.

상기와 같은 사항은 도서관 건물상 기본적인 배치구조에 관한 내용들 이지만 의외로 많은 공공도서관들이 이용자에 대한 봉사나 안전을 위한 재난대책은 기본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5) 재난경보장치와 소방서와의 연동장치 실태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제2장 제2절 경보설비의 조항 중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내용에 의하면 재난경보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반드시 소방관서에 전달되어야 한다는 지침이 명확하게 되어 명시되어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비상벨이 인근 소방서와 자동 연결 상태를 조사하였다.

<표 17>에서 나타나듯이, 전체 75개 도서관 중 과반수 이상의 61개(81.3%) 도서관은 비상벨의 자동장치가 안된 상태에서 직원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 화재신고를 해야만 하는 장치로 되어 있는 실태이다. 반대로 14개(18.7%) 도서관에서만 화염의 농도에 따라 비상벨이 자동으로 작동되는 상황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실정은 비상시 이용자들의 안전에 위협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법 지침에 따라 시급하게 자동 연락 장치로 시설변경을 해야 할 것이다.

<표 16> 건축상 실배치 설계 구조

실층배치	응답여부	응답	비율(%)	미응답	비율(%)	합계
사무실 상층 배치		5	6.7	70	93.3	100.0
난방실 지하층 배치		47	62.7	28	37.3	100.0
컴퓨터실 아래층 배치		16	21.3	59	78.7	100.0
이용률 높은 장서 아래층 배치		30	40.0	45	60.0	100.0
이용률 낮은 장서 별관배치		33	44.0	42	56.0	100.0
기타		4	5.3	71	94.7	100.0

〈표 17〉 재난경보장치의 연동장치 실태조사

소방서와의 연동	빈도수	비율(%)
비상벨 자동연락	14	18.7
직원의 수신통화	61	81.3
합계	75	100.0

4.4 인적 요소

1) 안전담당요원의 배정실태

도서관의 재난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에는 여러 요소들이 필요하겠으나, 그 가운데서도 인적인 요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공공도서관의 물적 및 인적요소의 보안과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담요원이 각 공공도서관 마다 몇 명이나 배정되어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표 18〉과 같이 75개 도서관 중 29개 도서관에는 한명의 직원도 배정되어 있지 않은 현상이 가장 높은 비율(38.7%)로서 나타나는데, 이는 도서관 안전상에서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1명의 안전담당 직원만 배정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이 23개관(30.7%)으로 2순위로 나타나고, 그 다음 순위로는 2명의 직원을 배정하고 있는 곳이 12개관(16.0%), 3명의 직원을

배정한 도서관이 6개관(8.0%), 5명이상의 직원을 배정하고 있는 도서관이 단지 3개 도서관(4.0%)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서 안전요원이란 건물을 순찰하거나 시설안전을 점검하는 관리인의 개념까지를 포함시킨 것으로 도서관의 규모나 이용자수의 따라서 인원을 증감할 수도 있으나, 이는 지침에 따라 반드시 1인 이상의 전담요원을 배정해야 할 것이다.

2) 안전담당요원의 고용형태.

공공도서관에 안전요원이 배정되어 있는 46개 도서관의 경우에 한하여, 그들의 고용계약의 형태를 다시 조사해 보았다. 〈표 19〉와 같이 46개 도서관 중 42개 도서관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상시 근무하는 자체적 전담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도서관이 37개 도서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정시간만 근무하는 용역요원의 고용상태가 4개 도서관으로 나타나

〈표 18〉 안전요원의 배정

안전요원의 배정	빈도수	비율(%)
없음	29	38.7
1명	23	30.7
2명	12	16.0
3명	6	8.0
5명 이상	3	4.0
미응답	2	2.7
합계	75	100.0

〈표 19〉 안전요원의 고용형태

고용형태	빈도수	비율(%)
상시근무전담요원	37	49.3
상시근무용역요원	1	1.3
일정시간전담요원	0	0.0
일정시간용역요원	4	5.3
기타	6	8.0
미응답	27	36.0
합계	75	100.0

고, 상시근무하는 용역요원의 고용형태는 1개 도서관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도서관에서 일정시간만 근무하는 전담요원을 두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각 기관마다 퇴근 후의 시설관리나 경비업무를 자체 전담 직원보다는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두는 사례가 공공도서관에서도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보안 안전상에서 빚어지게 되는 책임감이나 사명감의 입장에서 평가할 때 그다지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라고 분석된다.

4.5 안전교육상의 요소.

1) 비상시 연락대상자의 정보인지도

긴급비상시 공공도서관 직원 각자는 본인 다음으로 연락대상자들의 전화번호나 핸드폰 등의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가를 조사 확인해

보았다.

조사 결과 〈표 20〉과 같이, 75개 도서관 중 73개 도서관의 97.3%의 사서들 대부분이 비상시 다음 연락자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이 공무원의 책임감을 모두가 인식하는 것으로서 참으로 바람직한 상황이라 사료된다.

2) 이용자의 안전강좌 시행주기

화재안전기준(제3관 제10절)의 내용에서도 안전교육 훈련에 관하여 평소에도 방화관념을 고취하고 소방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월1회 이상 방화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소방 훈련과 병합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공공도서관에서 직원이나 이용자를 위한 재난안전에 관한 교육이나 훈련 실태를 조사해 보았다.

〈표 20〉 비상시 연락대상자의 정보인지도

정보인지도	빈도수	비율(%)
예	73	97.3
아니오	1	1.3
미응답	1	1.3
합계	75	100.0

조사 결과, <표 21>과 같이 이용자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공공도서관이 21개(28.0%)로 나타났으며, 이용자 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직원만을 교육하고 있는 도서관이 38개 도서관(50.7%)으로서 과반수에 달하고 있다.

그 외에 부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도서관은 7개 도서관(9.3%)으로 나타나며, 민방위 교육의 경우에만 실시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도서관이 5개관, 그리고 일년에 단 한번 교육을 실시하는 도서관이 4개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부재 현상으로서, 이는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인 교육방법으로 조속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라 사료된다.

3) 이용자 안전교육의 방법

재난이란 시기와 장소를 불문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므로 실제의 상황과 유사하게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한다고 해도 그 방법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체험적인가를 알기 위해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였다.

조사결과, <표 22>와 같이 공공도서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비상시의 주의사항과 비상계단 등의 위치를 도표로 제시하여 대피요령 등을 홍보하고 있는 방법은 20개 도서관에서 26.7%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2순위로는 포스터를 통한 홍보로 재난에 대비한 인식을 심어 주고 있는 도서관이 10개 도서관(13.3%)으로 나타나며, 한편 벽보를 붙여 이용자들에게 재난을 인지시키고 있는 도서관은 8개도서관(10.7%)으로 분석된다. 그 외에 팜플렛을 돌

<표 21> 이용자의 안전강좌 시행주기

안전강좌 시행주기	빈도수	비율(%)
민방위	5	6.7
일년에 한번	4	5.3
부정기적	7	9.3
실시안함	21	28.0
직원만 실시	38	50.7
합계	75	100.0

<표 22> 이용자 안전교육의 방법

이용자안전교육방법	빈도수	비율(%)
포스터	10	13.3
검색단말기 바탕화면	0	0.0
도서관 홈페이지	20	26.7
벽보	8	10.7
팜플렛	6	8.0
안내방송	6	8.0
기타	4	5.3
미응답	21	28.0
합계	75	100.0

리거나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안전교육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 도서관이 각각 6개 도서관(8.0%)으로 저조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만약 이용자를 위한 소방안전교육이 도서관 자체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면 지역내의 소방서등과 연계할 경우 보다 더 경제적이고 알찬 내용으로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5. 문제점 분석

5.1 관리상의 문제점

공공도서관에는 유아에서 노인까지 많은 이용자들의 출입이 잦으나 비상시에 재난을 예방하거나 재난대비를 위한 전담부서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도서관이 50.7%로서 과반수에 해당되며, 특히 재난발생시 이용자 대피를 위한 직원들의 행동강령의 지침이 결여(26.7%)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재난관리상 일상적으로 작성하는 건물의 순찰점검용 기록이나 비상물품목록(50.7%)의 준비 및 도서관 귀중자료나 귀중문서에 관한 목록의 작성을 과반수 이상의 도서관들이 미비되어 있는 상황으로 전반적으로 도서관 재난 관리대책에 관한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5.2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문제점

재난에 대비하여 공공도서관 건물의 설계가

도서관을 출입하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또는 각종의 시설과 장치가 비상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배치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불충분한 상태라고 평가될 수 있다. 특히 다량의 전기배선을 필요로 하는 컴퓨터실의 배치는 상층보다는 아래층에 배치시켜야 함이 재난의 피해정도를 절감시키는 요인으로 볼 때 이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된다.

재난대비용 장비실태에서는 15개종목 중 4종목을 제외하고는 11개 항목의 재난장비를 갖추지 못한 도서관의 비율이 무엇보다 높게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재난경보장치와 소화기 및 소방호수나 열화감지기와 같은 장비는 과반수이상의 도서관에서 준비되어져 있으나, 반대로 고가예산을 필요로 하는 냉동고나, 화기센서장치 및 항온항습 장비나 스프링클러 장치와 같은 시설은 대다수의 도서관들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비상시 대피를 위한 피난도구나 화재진압용 기구 등의 비치수량은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모두 불충분한 수량으로 나타난다. 특히 냉동고를 지닌 공공도서관은 한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리고 재난경보장치가 소방서와 자동식으로 연동되어 있지 않은 도서관이 81.3%로서, 이는 소방기술수준 제2장 제2절의 규정에도 저촉되는 사항으로 분석되며, 동시 비상구의 점등상태도 항시 자동식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도서관이 82.7%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평상시 비상구의 주변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아 비상대피시 커다란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응답(2.6%)한 상황도 속히 소방지침에 따라 해

결해야 될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5.3 인적요소에 관한 문제점

공공도서관내 안전담당요원을 1명씩 배정하고 있는 곳은 23개(30.7%)관 뿐이며, 반면 한 명도 배정하고 있지 않은 도서관이 75개 도서관 중 29개 도서관(38.7%)으로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의 고용형태를 조사해 보면, 기능직으로서 상시근무하는 자체적 전담요원의 고용형태가 37개관으로 과반수를 못 미치고 있으며, 동시에 일정시간만 근무토록 하는 용역업체의 요원을 두고 있는 도서관도 5개 도서관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과정 중 최근 인력감축의 대책방법으로서 도서관마다 안전담당직원을 두지 않고 무인경비시스템 장치를 활용하거나 퇴근후 일정시간 동안만 시설관리나 경비업무만을 담당하는 용역직원을 고용하는 실정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의 보안 안정상의 책임감이나 사명감의 입장에서 평가 할 때 이 또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5.4 이용자 안전교육상의 문제점

방화관리규정에 의하면 매월 1회씩 재난대비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공공도서관은 독자적인 체제의 재난계획이나 훈련보다는 시청이나 군차원에서 실시하는 일상적 사례에 따라 답습 또는 병행 시행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재난에 관한 이용자교육을 전혀 시행하고 있

지 않은 도서관이 21개(28.0%)관으로서 나타나는데, 일면 직원만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도서관이 38개관으로서 과반수(50.7%)에 가깝다. 그 외에 민방위교육이 있을 경우에만 훈련을 시행하거나 일년에 단 한번만 교육을 시행하는 사례가 16개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이 지역주민을 봉사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재난관리 체계가 막상 이용자들의 재난 안전교육에는 극히 저조한 인식으로 분석되고 있다. 동시 그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비상계단 옆의 난간에다 도표를 제시하거나 포스터 및 벽보, 또는 팜플렛 배부나 안내방송을 통한 일회적인 방법으로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다수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전반적으로 재난대비를 위한 홍보나 교육이 아주 저조한 실정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실정은 도서관장 이하 사서직원 부터 재난의 예방과 대응책에 관한 의식의 부족에서 기인된 것으로 지적된다.

이상과 같은 여러 문제점들에 관하여 미래의 공공도서관들이 어떻게 재난을 미연에 예방하고 조치하며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그 대책방안 등을 11개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 검토해 보고자 한다.

6. 해결방안 및 재난대책의 확립

도서관에서의 재난대책의 요소는 건물과 장서 및 자료, 직원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재난의 예방과 준비 및 대응과 복구, 기타 외부기관과의 지원 체제와 현장지휘 체제에 관련된 폭넓은 정보와 지식을 필요로 하게 된다.

1) 재난에 관한 지식을 총망라하여 이를 기초로 재난대책계획서를 면밀히 수립하고, 이를 수행해 나갈 전담부서나 전문직원을 배치하여 재난예방을 위한 준비와 대응계획 등을 집행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재난대책의 계획서에는 반드시 비상사태나 재난대비를 위해 예방단계 및 준비단계를 마련하며, 비상시의 대응과 복구에 있어서도 각 단계별로 담당자의 구체적인 역할들을 지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시 이러한 계획의 존재와 세부사항들을 모든 직원에게 반드시 인지시켜야 하며, 비상시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을 빠르게 인지하여 긍정적인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비상시 재난관리 담당자는 도서관장에게 신속히 사태보고를 실시하고 관리자와 책임자를 만나 재난의 손실을 평가하고, 손실된 자료에 관한 정보내용들을 포함시켜, 이것을 모두 문서로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3) 도서관의 이용자나 직원의 안전을 위한 행동강령지침의 교육이나 훈련 및 홍보 활동을 위한 경비 및 재난대비를 위한 각종 피난도구나 장비구입에 해당되는 별도의 예산항목을 의무적으로 배정하도록 규정화시켜야 할 것이다.

4) 도서관의 장서 중에서 핵심 되는 귀중본 자료나 귀중문서의 경우에는 그 선정기준과 그 양을 법령상으로 지정하여, 비상시의 재난구조나 복구에 우선 순위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동시 우선권을 갖는 중요장서나 자료의 목록을 미리 작성, 비치하여 주기적으로 확인 작업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핵심기록물이 손상을 입

지 않도록 기관내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소개 또는 이관시켜 만일의 사태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도서관의 건물이나 시설이 노후화된 경우에는 반드시 건물구조의 심사를 진단 받아야 하며, 각종 배수관의 문제와 화재경보 시설 및 비상구 대피의 경로 등을 세심하게 체크하여 재난관리대책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6) 재난에 관련된 시설과 장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재난예방을 위한 화재감지센서나 경보장치 및 재난복구의 장비로서 냉동고와 스프링클러의 장치는 반드시 설치시키도록 하여 비상시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냉동고는 비상사태의 준비 대책이며 동시 재난 복구를 위한 커다란 예방책의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냉동고에 관한 효과적 사례를 한가지 설명한다면, 미국 플로렌스 지역의 경우 1966년에 발생한 홍수로 많은 도서와 자료들이 손상을 크게 입었다. 그 중에서 가장 커다란 피해는 도서관에 소장된 19세기와 20세기의 자료들이었다고 한다. 이 자료들은 건조과정 동안 서로 달라붙어 나중에 분리되지 않아 손상이 컸다. 홍수가 발생한 이후에 플로렌스 지방 도서관에서는 냉동고 장치를 설치하여 물에 의해 손상을 입은 추가된 서적 수천권이 완전히 구조되거나 손상을 훨씬 덜 받게 되었다고 한다.

7) 공공도서관들은 비상시나 또는 재난에 대비하여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둘 필요가 있다. 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하는 하나의

투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도난이나 화재손실, 파손에 의한 손해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 대부분이지만, 한정적으로 전쟁이나 핵위협 또는 지진이나 공해물, 오염물, 침하, 분실 등으로 인한 도서관 장서나 자료에 손실을 당했을 경우에는 보험내용에 해당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아직까지는 문화유산에 관한 보존이나 재난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환경이지만 하루 속히 도서관 재난을 대비한 보험의 부재나 인식의 부족현상은 정책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8) 인적인 요소로서 도서관의 별도의 재난관리의 전문인력을 고용하기 힘들거나, 보안요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대체 수단으로서 반드시 저렴한 무인경비시스템 장치를 통하여 도서관 운영 비용을 절감하며 동시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각종 피난기구나 화재진압도구를 필히 구비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이러한 기구들을 직원들 스스로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훈련이 시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에 소요되는 재정경비를 별도 계획 책정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9) 공공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재난안전교육이 활성화되려면, 먼저 이용자들의 달라진 이용행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모든 도서관이 계속 전자화되고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그들이 손쉽게 접하고 인식할 수 있는 재난예방의 콘텐츠와 기술의 개발이 우선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화재나 폭우 및 지진과 같이 때와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기본적인 내용은 일관성 있는

안전교육으로서 도서관 자체의 내규나 프로그램의 특징적이고도 질적인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10) 공공도서관 조직상에서 재난안전 관리직원과 재난복구회사의 현장에서의 협동은 재난대처에 있어서 중요한 일 요소가 되고 있다. 재난 발생의 현장에 대한 참여자의 의견을 종합분석 평가하여, 이미 학습된 내용을 재난 복구수립 계획과정에 반영시킬 수도 있고 계획을 적절히 수정할 수도 있어야 한다. 특히 응급상황에서의 구조인력이나, 조연자들의 설명을 참고하여 비상시 도서관 관리자들의 효율적인 재난복구 관리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1)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으로서, 사서들은 대피경로의 방향이나 행동요령 또는 피난도구의 사용방법과 같은 내용들은 차후 도서관 홈페이지나 팸플렛 배부를 통해서라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서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재난은 단 한번의 발생으로도 큰 피해를 남길 수 있으며, 특히 화재는 조그마한 대비가 큰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7. 결론 및 제언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대전 및 전북지역의 공공도서관 75개를 대상으로 재난대비를 위한 현장의 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 중요 항목만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공공도서관들이 경험했던 재난의 범위는 대부분이 홍수로 인한 건물지붕의 누수나 침수 및 컴퓨터 시스템의 장애나 해킹 그리고 태풍 또는 도난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큰화재나 지진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재난의 발생원인 조사에서는 급배수로 인한 누수 및 문제이용자의 폭언과 폭행 그리고 누전과 장비의 부족 및 장애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재난후 피해정도의 조사에서는 장서가 물에 젖어버린 사태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해충이나 곤충발생 등으로 소수 도서관이 피해를 당했던 반면 피해상황의 정도를 밝히기를 꺼려하는 도서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2. 재난대비를 위한 관리상 조사에서는 비상시 직원들의 행동요령지침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 73%의 비율이나, 반면 27%의 도서관은 아무런 규정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있다. 동시 재난업무의 담당부서를 두고 있는 곳은 과반수(51%)정도이나, 한명의 직원조차 배정하지 않고 있는 도서관도 48%로서 나타나고 있다.

도서관 건물관리상 순찰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도서관이 37%로서 재난대비를 위한 계획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동시 순찰기록의 내용조사에서는 방화벽의 작동여부나 스프링클러, 서고내 온습도의 상태, 보일러실의 점검 등에 관한 항목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으며, 반면에 누수부분의 점검기록이나 건물의 파괴, 비상벨장치, 전기배선 및 담뱃불의 확인 및 비상구 대피로의 점검과 같은 항목의 기록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상시 사서직원들의 행동의 우선순위도 조사에서는 이용자 대피를 가장 우선적 행동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소방서의 신고나 비상벨을 울리는 순위로 높게 나타나고, 반면에 중요서류나 귀중장서의 이동에 대한 행동은 가장 차선책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시 컴퓨터데이터 보호를 위한 예방책으로서 웹방화벽 장치를 실시하는 곳이 가장 높으나, 비밀번호의 변경이나 전기충격을 방지키 위한 장치는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3. 재난대비를 위한 비상장비나 시설 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비상벨 장치와 열화감지기 및 물분무식 소화기, 소방호스 등을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많이 구비하고 있으나, 반면에 냉동차나 냉동고 및 이동용 무전기와 항온항습기 그리고 스프링 콜러 등의 비치율은 극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제시된 15가지 항목 중 그중 한 가지의 장비도 구비하고 있지 못한 도서관이 나타나고 있음은 실로 우려되는 실정이다.

또한 비상구 주변의 정리상태는 대부분 잘 정돈되어 있는 상황이며, 건축상 실배치의 설계구조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해 전기배선이 많이 필요한 컴퓨터실은 주로 아래층에 배치하여야 하나, 그 비율은 21%로서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4. 도서관의 재난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적요소이다.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배치를 한명도 배정하고 있지 않은 도서관이 39%로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도서관 안전상에서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5. 긴급비상시 본인 다음으로 연락대상자의

정보를 미리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 이용자의 안전교육을 위한 강좌나 훈련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곳은 28%에 불과하고, 일부 직원만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곳도 과반수에 미치고 있다. 이같이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부재현상은 물론, 그 교육의 실시 방법이나 내용에 있어서도 극히 구체적이거나 면밀하지 못한 실정으로 분석되고 있다.

종합적인 면에서 분석해 보면, 우선 모든 공공도서관은 일반 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아닌 도서관만의 특성에 기초하여 독립적인 재난관리법규가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법령지침에 따라 도서관 조직내에 우선 재난예방을 위한 전담 부서를 편성하거나, 또는 재난관리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일면 도서관 건축법등을 재정비하여 건물구조나 설비치가 지침에 합당하도록 설계되었는지, 또 기존 건물의 기준심사를 통해 유지나 보수를 받도록 진단하는 일도 필요하다. 특히 도서관 건물의 부지 선정시에는 반드시 일정기간 동안의 기상조건이나 재해현황에 관한 데이터를 검토하여 지진이나 수해 등의 피해가 거의 없는 지역은 물론 특히 화재나 폭발가능성이

있는 장소 및 군사시설 등의 전략적 요충지는 되도록 피하며, 건물 주변의 교통 환경의 조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행정서비스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각종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끝으로, 비상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현장지휘자의 능력발휘는 잘 문서화된 계획서보다 한층 더 중대한 효과를 얻게 되는 업무활동이다. 또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여러 전쟁이나 사건들 속에서 또는 태풍으로 인한 건물의 누수나 또는 누수로 인한 장서의 파손등과 같은 재해의 현장에서 얻은 경험들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자 하는 활동에 관하여서는 그리 큰 효과를 얻어 내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태도는 그동안 죄의식이나 비난의 문화 속에서 비롯된 것일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는 이를 극복하고, 재난관리자들의 전문지식이나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도 도서관 사서들은 많이 듣고 배워서 재난대응책으로 적용해 나가야 할 시기이다. 일부 이러한 재난의 협동 활동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앞으로는 더욱 재난 협동활동의 확대 가능성에 관한 연구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하비,R. 1999. 『자료보존론』. 권기원, 방준필, 이종권 공역. 서울: 사민서각.
 백민호, 2002. “방재기본계획수립을 위한 방재정책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행정자치부국립 방재연구소, 11-13.

행정자치부 국립방재연구소, 1999. “지진시 행동요령.” 2-5.
 행정자치부 국립방재연구소, 2003. 『재해원인분석조사단의 운영활성화 및 홍수범람지도의 활용방안 연구』. 18-27.

군산시 재해대책본부. 2001년도 『군산시 방재 계획』. 242-250.

송과구. 2005. 『안전관리계획』. 33-70

전북은행. 2005. 『보안업무 실무편람』. 193-204.

Buchanan, Sally.1993. "Disaster: prevention, preparedness and action." *Library Tre-*

nds, 30(2): 241-252.

Rightmeyer, S.P. 1995. "Disaster planning, or the 'What next, attitude.'" *New Jersey Libraries*, 28(3): 3-5.

한국소방안전협회. <http://www.kfsa.or.kr/>